

# 일본농촌여성의 농산물가공활동과 발전가능성 - 효고현(兵庫縣)의 농촌여성가공회를 중심으로 -

노 채 영<sup>†</sup>

목포대학교 소비자운동주거학과

## The Activi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and Future Strategies by Rural Women Groups in Japan

Chae-Yeong, Ro<sup>†</sup>

Dept. of Consumer, Child & Housing, Mokpo National Univ.

### Abstract

Investigations were made on the status of women groups on processing activi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Hyogo prefecture in Japa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Hideyosi for Windows(Version 1.19) and the Econometric View for Quantative Micro Software(Version 2.0).

The results indicats that many rural women groups have their own experience on the activities of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many other women groups have gained such experience from the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restaurants and direct sales stores. This kind of systems has influenced the activation of each rural district. Further development of the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ts by rural women groups in the future demands better cooperation among diverse groups involved in these establishment centers and consum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ttract young people and train and upgrade them for successive consumers. (*Korean J of Human Ecology* 2(1):68-79, 1999)

KEY WORDS :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Rural Women Groups, Successive Consumers

### I. 서 론

최근, 일본에서는 식생활의 다양화가 배경이 되어, 농촌 각 지역의 특징있는 농산물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농산물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유리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 가공회를 형성하고, 특산품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활동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가 일본 농촌의 각 지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여성활동의 공헌이 높은 평가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onsumer, Child & Housing, Mokpo National Univ.,  
61 Torim-ri, Chungkye-myon, Muan-gun, Chonnam, 534-729, Korea  
Tel : 0636-450-2510

를 받고 있다.

농촌여성가공회는 일본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인 농업개량 보급사업, 생활개선 보급사업, 농촌청소년 육성 중에서, 중요한 한 갈래의 사업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는 생활개선보급사업 활동의 주역이다(川俣茂 1997). 이들은 농촌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각 지역에서 특징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이며 의욕적으로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은 농촌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활동을 비롯한 다종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地域社會計劃 センター 1995). 이것은 일본 정부가 신경책으로 제시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여성의 역할의 명확성을 향상시킨다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활동이다.

일본의 생활개선 보급사업은 1948년에 「농업개량 조장법」을 기초로 하여 창설된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일환이다(川俣茂 1997). 이 사업은 단지, 생활개선의 기술 보급과 지도에 멈추지 않고, 농가경영을 포함한 농가경제 전반에 걸친 농업과 생활에 관계되는 사회성, 경제성에 초점을 둔 보급활동이며 생활영역 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생활개선 보급사업은 농가의 다양한 생활의 전반적 기반을 지지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농사교도법」의 제정에 따라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농촌생활개선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농촌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1993). 특히, 「농촌여성 일감갹기사업」과 같은 농촌여성 소득사업의 전개는 농촌여성의 경제력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고 삶의 의욕을 진작시키는 활동으로서, 일본 농촌의 생활개선실행회의 활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고도경제성장기에 있어 일본의 생활개선사업은 생활면에서 물적인 향상을 진행시켜 가면서, 농촌사회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농가의 겸업화, 농촌사회의 도시화(都市化)·혼주화(混住化)라는 농촌을 둘러싼 변화를 동반하면서 물적인 생활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생활행동의 다양화로, 생활의 개념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생활에 관해서는 생활활동이나 지역활동을 생활의 시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촌여성의 지역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효고현(兵庫縣)에서 농산물 가공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여성가공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효고현(兵庫縣)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logit모형을 사용하여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영향변인을 구명함으로써 농촌여성가공회의 향후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우리나라 생활개선회 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농촌여성가공회 창설의 배경과 의의

최근들어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의 풍부함 속에서 물적인 면의 생활개선을 권장하는 활동에서, 질적인 면의 생활개선활동으로 그 활동내용이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의 개선」에 한정되었던 생활개선보급활동은 1991년 이후 큰 전환을 보여, 「농가경영」, 「농업노동개선」, 「농산물활용」 및 「농촌환경」의 4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전개시키기로 하였다(兵庫縣生活改善實行グループ連絡協議會 1992). 그 활동의 목적은 「가정생활의 향상」에서 「직업생활의 향상」, 및 「지역사회생활의 향상」에 두고 있으며, 생활의 개념을 보다 넓은 틀로 받아 들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는 각 농촌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조직화되어, 농촌사회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생활개선실행회의 활동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으며, 이들 농촌여성의 새로운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이 생활개선실행회의 육성이 농업개량보급센터(우리나라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역할)를 중심으로 새롭게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생활개선실행회 중에서 농산물 가공을 그 활동의 주요 목표로 두고 있는 농촌

여성회를 「농촌여성가공회」라고 일컫기로 한다. 이들은 거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농촌여성 단체를 형성하여 자신들이 사업자금을 형편에 맞게 출자한다. 이들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여성기업(女性起業)」(地域社會計劃 センター 1995)이라 칭한다.

이들 농촌여성들의 주요 활동은 1992년 6월에 일본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의 개인으로서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여성의 역할의 명확화를 명기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관한 비전연구회에서도 농업생산·농촌활성화의 주요담당자로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新農政推進研究會 1992). 이들 농촌여성단체의 육성활동은 소수의 생활관계보급원(우리나라의 생활지도사와 같은 역할)이 보급·지도활동을 하는데 개별지도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과거와 비교해 볼때에 지금도 낮다고 여겨지는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수 있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여성의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이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농촌의 생활개선과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볼때에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최근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자주적으로 조직화되어, 각 지역에서 특징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생활개선실행회와 농산물가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촌여성가공회 등의 존재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일본정부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틀 속에서, 각 지역의 농업개량보급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생활개선실행회의 단체육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개선실행회의 활동은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활동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 2.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내용

일본의 생활개선실행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여

성회에 의한 지역활동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들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농산물 가공활동은 여성의 주체적 활동으로서, 그 사업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행해지고 있다. 절임 등의 보존식품, 된장 등의 조미식품의 가공은 여성이 가정내에서 전통적으로 습득해 온 생활기술을 응용하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고, 원재료도 거의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자본도 반드시 다액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지역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다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魯采瑛, 1998).

우리나라에서도 1958년 생활개선 구락부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으며, 의·식·주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생활개선 보급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새롭게 설립하고 「가정관리 향상」, 「생활환경 개선」, 「농업인 건강증진」, 「생활개선회 육성」 등을 활동목표로 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 1993). 특히, 좀더 구체적으로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과 같은 농촌여성 소득사업의 전개는 농촌여성의 경제력이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삶의 의욕을 진작시키는 활동으로서, 일본농촌의 생활개선실행회의 활동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성의 역할(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5)은 여성이 갖고 있는 생활기술 등의 능력발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여성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평가의 향상 등이 가능하다. 농촌여성들이 단체활동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수익사업활동(地域社會計劃센터 1994)으로는 농작업, 신규작목의 공동경영 등의 「농업생산」, 잉여생산물의 가공, 특산식품의 개발 등의 「식품가공」, 염색, 직조 등의 「식품이외의 가공」, 레스토랑, 직매소의 운영 등의 「유통·판매」, 농가의 민박, 체험농장, 관광농원 등과 같은 「도시와의 교류」, 계절 유치원, 공동급식,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서서비스 등의 「서서비스업」의 6부문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식품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地域社會計劃센터 1995) 농촌여성들의 사업내용에 있어 그 비중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촌여성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표적인 연구가 몇 있기는 하지만, 이들 연구는 실태보고가 중심이며, 농촌여성의 농산물 가공활동의 의의를 밝히고 그 활동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밝힌 연구의 축적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농촌여성의 농산물 가공활동과 같은 지역활동에 대한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 1) 일본 효고현(兵庫縣)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일본 효고현(兵庫縣)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은 어떠한가?
- 3) 농촌여성가공회의 발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일본 효고현(兵庫縣)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9월 22일 부터 10월 15일까지였다. 일본 효고현(兵庫縣)에는 1997년 9월 현재 총 176의 농산물가공 생산조직이 있고, 이들 중에서 여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여성조직으로서 125의 농촌여성가공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생활개선실행회」는 73 「기타여성회」는 52이며, 이들 전체 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생활개선실행회」에서 39부, 「기타여성회」에서 24부가 회수되어 총 회답수는 63으로 회수율은 50.4%였다.

#### 3. 분석방법

여기서는 농촌여성의 농산물가공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농촌여성의 활동이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해 내고 있다고 보아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활동의 지속성이 기대

가 되고 있는 농촌여성가공회 활동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에 관한 설문조사의 집계는 「생활개선실행회」와 「기타여성회」로 나누어서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같이 양자(兩者)를 나누어 정리하는 이유는, 전자(前者)인 「생활개선실행회」는 반드시 농산물가공 그 자체를 제 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많고, 자가소비를 중심으로 삶의 보람을 찾거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많은 반면, 후자(後者)인 「기타여성회」는 농산가공을 제 1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는 단체가 많은 편이어서 양자의 사업목적(兵庫縣農林水産部 1997)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활동의 현황에 관해서는 (株) 사회정보 서어비스사의 「히데요시(秀吉) for Windows (Version 1.19)」를 이용하였다. 또한 농촌여성가공회의 금후의 발전가능성에 관해서는 질적반응모델의 하나인 logit모델을 이용하여 행동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활동이 계속되게 하는 영향요인을 밝혔다. logit분석에는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데이터 가운데 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회답한 55부를 선정하였으며, Quantative Micro Software사의 「Econometric View(Version 2.0)」를 이용하였다.

### Ⅳ. 연구결과의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연령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응답자인 대표자의 연령은 전체적으로 볼 때, 「60대」가 44.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 「70대 이상」이 각각 17.5%였다. 「70대 이상」에서는 실제 80세를 훨씬 넘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자도 있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며, 전체의 평균연령은 62세인데, 이를 볼 때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가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수입형태

주요한 수입형태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농업수입만」

의 전업농가가 11.1%로 소수에 그치고 있다.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다」라는 제 1 종겸업농가는 전체의 3.2%로 극히 소수이고,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다」는 제 2 종겸업농가가 54.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개선훈행회와 기타여성회의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다. 또한, 「농외수입만」과 「기타」도 31.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에서 볼 때 결국, 조사대상자인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들은 연금수입과 농산물가공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3) 연간 농산물 판매액

「농업수입만」, 「농업수입이 농외수입 보다 많다」, 「농외수입이 농업수입 보다 많다」라는 농업에 의한 수입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정시켜, 1996년도 1년간의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보아 거의 차이는 없었고, 「500만원 미만」이 46.1%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소수임을 볼때, 대부분이 소규모의 농업경영임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 용	생활개선훈행회	기타여성회	전 체
연령구성	40대		4(10.3)	1( 4.2)	5( 7.9)
	50대		6(15.4)	5(20.8)	11(17.5)
	60대		19(48.7)	9(37.5)	28(44.4)
	70대		8(20.5)	3(12.5)	11(17.5)
	무응답		2( 5.1)	6(25.0)	8(12.7)
수입형태	농업수입만		3( 7.7)	4(16.7)	7(11.1)
	농업수입이 농외수입보다 많다		1( 2.6)	1( 4.2)	2( 3.2)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다		23(58.9)	11(45.8)	34(54.0)
	농외수입만		9(23.1)	6(25.0)	15(23.8)
	기타		3( 7.7)	2( 8.3)	5( 7.9)
연간농산물판매액	100만원미만		9(23.1)	7(29.2)	16(25.4)
	100~300만원미만		6(15.4)	4(16.7)	10(15.9)
	300~500만원미만		1( 2.6)	2( 8.3)	3( 4.8)
	500~700만원미만		4(10.3)	1( 4.2)	5( 7.9)
	700~1000만원미만		1( 2.6)	-	1( 1.6)
	1000만원미만		3( 7.7)	1( 4.2)	4( 6.3)
	무응답		3( 7.7)	1( 4.2)	4( 6.3)
	비해당		12(30.6)	8(33.2)	20(31.8)
거주년수	30년미만		3( 7.7)	2( 8.3)	5( 7.9)
	30~40년미만		7(17.9)	5(20.8)	12(19.0)
	40년이상		25(64.1)	15(62.6)	40(63.6)
	무응답		4(10.3)	2( 8.3)	6( 9.5)
직업중사의경험	정사원·정직원	있	24(61.5)	16(66.7)	40(63.5)
		없	15(38.5)	8(33.3)	23(36.5)
	파트타임	있	13(33.3)	16(66.7)	29(46.0)
		없	26(66.7)	8(33.3)	34(54.0)
	농업이외의가업	있	11(28.2)	11(45.8)	22(34.9)
		없	28(71.8)	13(54.2)	41(65.1)
	농업	있	21(53.8)	14(58.3)	35(55.6)
		없	18(46.2)	10(41.7)	28(44.4)
전체응답수			39(100.0)	24(100.0)	63(100.0)

## 4) 거주년수

현재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 관해서는 「40년 이상」이 6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자로 활약하고 있는 응답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대답이 60%를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생활해 온 여성이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여성가공회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대표자가 주변의 농촌여성에게 의견제안 등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5) 직업종사의 경험 여부

현재, 대표자로서 농산물가공활동에 종사하기 이전에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사원·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3.5%를 차지하고 있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에서 보면, 이러한 직업경험이 농산물가공활동을 계속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파트 타임」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6.0%, 「농업 이외의 가업」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9%, 「조력을 포함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5.6%였다. 유형별로 보면, 「파트 타임」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관해서는 생활개선실행회가 33.3%인데 비하여, 기타여성회는 6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 이외의 가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관해서도 생활개선실행회가 28.2%인데 반하여, 기타여성회가 4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응답자의 거의 과반수 정도가 어떤 형태이든지 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

## 1) 지역별 분포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에 응답한 농촌여성가공회를 지역별로 보면, 「니시하리마(西播磨)」, 「다지마(但馬)」가 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히가시하리마(東播磨)」가 11로 나타나, 대체로 전체수에 비례한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효고현(兵庫縣)에서 농산물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여성회수는 현황조사의 자료(兵庫縣農林水産部普及教育課 1997년)에 의하면, 「한신(阪神)」이 8, 「히가시하리마(東播磨)」가 19, 「니시하리마(西播磨)」가 39, 「다지마(但馬)」가 43, 「단바(丹波)」가 9, 「아와지(淡路)」가 7로 되어 있다.

## 2) 구성원의 연령

농산물 가공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활동회원)의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50대」, 「40대」, 「70대」의 순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여성의 고령화를 반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복수회답의 결과를 보인 것은 각 여성회의 전체 구성원수는 2, 3명에서 많은 곳은 100명이 넘는 곳도 있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10명 전후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가장 많았다. 이는 단체활동을 하는 데 있어 10명 전후가 농산물가공회를 활동을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 3) 농산물 가공활동의 시작시기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농산물 가공활동을 시작한지 가장 오래된 회는 1973년에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결성된 생활개선실행회의 개시시기를 보면, 가장 빠른 곳이 195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970년대부터 농산물 가공활동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전개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여성가공회의 결성년도는 농산물 가공활동을 시작한 연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결성된 곳도 31.7%를 차지하고 있어, 근년 들어 농촌에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들어 농산물 가공활동을 중심으로 농촌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여성활동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 4) 법인화의 현황

농촌여성가공회의 법인화의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했다」, 「예정이다」라고 대답한 단체가 전체의 9.5%에

〈표 2〉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

단위:단체(%)

구분	내 용	생활개선실행회	기타여성회	전 체
지 역 별	한신(阪神)	3( 7.7)	-	3( 4.8)
	히가시하리마(東播磨)	8(20.5)	3(12.5)	11(17.5)
	니시하리마(西播磨)	13(33.3)	7(29.2)	20(31.7)
	다지마(但馬)	10(25.6)	10(41.6)	20(31.7)
	단바(丹波)	1( 2.6)	1( 4.2)	2( 3.2)
	아와지(淡路)	3( 7.7)	2( 8.3)	5( 7.9)
	무응답	1( 2.6)	1( 4.2)	2( 3.2)
구 성 원 의 연 령	30대	5(12.8)	4(16.7)	9(14.3)
	40대	18(46.2)	11(45.8)	29(46.0)
	50대	27(69.2)	19(79.2)	46(73.0)
	60대	32(82.1)	22(91.7)	54(85.7)
	70대이상	16(41.0)	11(45.8)	27(42.9)
	무응답	2( 5.1)	-	2( 3.2)
시 기	1970년대	3( 7.7)	1( 4.2)	4( 6.3)
	1980년대	23(59.0)	14(58.3)	37(58.8)
	1990년대	11(28.2)	9(37.5)	20(31.7)
	무응답	2( 5.1)	-	2( 3.2)
법 인 화	이미 했다	2( 5.1)	2( 8.3)	4( 6.3)
	예정이다	1( 2.6)	1( 4.2)	2( 3.2)
	계획이 없다	36(92.3)	21(87.5)	57(90.5)
연 간 매 상	50만엔 미만	8(20.5)	5(20.8)	13(20.7)
	50~100만엔 미만	6(15.4)	4(16.7)	10(15.9)
	100~200만엔 미만	7(17.9)	2( 8.3)	9(14.3)
	200~300만엔 미만	5(12.8)	2( 8.3)	7(11.1)
	300~500만엔 미만	3( 7.7)	1( 4.2)	4( 6.3)
	500~1000만엔 미만	2( 5.1)	4(16.7)	6( 9.5)
	1000~2000만엔 미만	1( 2.6)	3(12.5)	4( 6.3)
	2000만엔 이상	1( 2.6)	2( 8.3)	3( 4.8)
	무응답	6(15.4)	1( 4.2)	7(11.1)
판 매 처	백화점	4(10.3)	-	4( 6.3)
	일반소매점	8(20.5)	3(12.5)	11(17.5)
	지역의 직매소	28(71.8)	18(75.0)	46(73.0)
	택 배	12(30.8)	11(45.8)	23(36.5)
	이벤트회장	29(74.4)	20(83.3)	49(77.8)
	기 타	7(17.9)	8(33.3)	15(23.8)
	무응답	1( 2.6)	-	1( 1.6)
		전체응답수	39(100.0)	24(100.0)

주:구성원의 연령, 판매처는 복수회답

그치는 반면,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한 단체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농촌여성가공회가 법인화를 진행시키기에는 조건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농산가공활동의 목적이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이 목적인

단체는 대부분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취미로서 농산물가공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의 구체적인 형태로서는 「농사조합법인」, 「유한회사」, 「주식회사」등을 들었다.

5) 연간매상현황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통해 얻은 1996년도 1년 동안의 매상 현황을 보면, 「100만엔 미만」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개선 실행회에서 35.9%, 기타여성회에서도 37.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농산가공활동의 주요 목적이 자가소비를 중심으로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한 취미활동인 단체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500만엔 이상」의 단체는 전체의 20.6%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보면, 생활개선실행회가 9.8%인데 대하여, 기타여성회는 37.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간 매상이 높은 곳은 8천만엔을 넘는 단체도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여성회가 가공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활동 그 자체를 제 1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결성된 곳이 많음에 비하여, 생활개선실행회는 취미활동이나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에 종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개선실행회는 생활개선보급사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활동중의 한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활동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주요 판매처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의 주요 판매처로써는 전체적으로 「이벤트 장소」가 7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의 직매소」가 7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하, 「택배」가 36.5%, 「기타」가 23.8%의 순이었다. 「기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사이찌(朝市), 아오조라이찌(靑空市) 등을 들 수 있다. 아사이찌(朝市), 또는 아오조라이찌(靑空市) 등은 우리나라의 5일장 혹은 임시로 형성되는 시장의 한 형태로써 우선 간단히 판매하기 쉬운 수단이며 판로의 확대에 고민하는 단체에게는 유효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가공활동에 대한 발전가능성

1) 분석모델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 가공활동이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활동의 계속성이 기대되는 농촌여성가공회의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질적 반응모델의 하나인 logit모델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활동의 발전가능성에 관한 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활동을 발전 가능하도록 하는 영향요인을 밝힌다.

〈표 3〉은 방정식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는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가공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있을지의 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금후 10년간 농산물가공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예」라고 대답한 것은 1, 「아니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을 0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속시키는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요인으로서 단체의 일반적 특성, 농산물가공기술 습득방법,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선정하였다.

logit모델은 종속변수가 이산선택을 나타내는 변수가 될 경우, 회귀에 유익한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어, 개별 주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적인 이론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黑柳俊雄·嘉田良平 1996). 이는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고, 茂野(1989), 石田(1996), 寺脇(1996), 吉本·永木(1997) 등의 연구 업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본 분석에서 이용되는 종속변수가 1 또는 0의 두값으로 할 경우의 logit모델에 관해서 설명한다. logit모델은 통상, 실제로는 관측되지 않는, 다시말하면, 데이터로서 입수되지 않는 변수로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를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된다.

$$y^* = \beta_0 + \sum_{j=1}^k \beta_j x_{ij} + u_i \quad (1)$$

$\beta_0, \beta_j$ 는 추정하는 파라메터,  $x_{ij}$ 는 독립변수가 된다.  $u_i$ 는 로지스틱 분포하는 오차항이며, 분산  $\text{var}(u_i) = 1$  을 가정한다. 또한, 실제, 관측된 관측변수  $y^*$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_i = \begin{cases} 1 & y > 0 \\ 0 & y \leq 0 \end{cases} \quad (2)$$



(1), (2)식에서  $y_i=1$  이 되는 확률  $p_i$ 는 오차항  $u_i$ 의 누적분포함수  $F$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p_i = F(B_0 + \sum_{j=1}^k \beta_j x_{ij}) \quad (3)$$

이 확률을 이용해서 함수  $L$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 \prod_{y_i=1} p_i \prod_{y_i=0} (1 - p_i) \quad (4)$$

(4)식에서 나타낸 함수  $L$ 의 최대화를 실시하여, (1)식의 파라미터의 추정을 행한다.

2) 데이터의 처리과정

데이터의 처리는 일본의 효고현(兵庫縣)에서 농산물 가공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여성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63부의 전체 응답수 가운데에 분석에 필요한 항목에 제대로 응답한 55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방정식의 추정에는 Quantitative Micro Software 사의

<표 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변수명	정의	변수내용
<b>종속변수</b>		
CNT	금후 10년간 농산물가공활동의 발전 가능성	'YES'=1, 'NO'=0
<b>독립변수</b>		
<b>단체의 일반적 특성</b>		
GRP	단체의 분류	'생활개선실행회'=1, '기타여성회'=0
NMB	구성원의 수	수치데이터
AGE	구성원의 연령구성	수치데이터
YER	농산물가공활동을 시작한 시기	수치데이터
CPR	법인화의 계획	'이미했다'=1, '예정이다'=2, '계획이 없다'=3
RVN	1년간의 매상금액	수치데이터
MIX	농산물가공과 다른 사업과의 병행여부	'YES'=1, 'NO'=2
EST	농산물가공시설의 유무	'있다'=1, '없다'=0
<b>농산물가공기술 습득방법</b>		
TCH1	가정의 전통생활기술의 활용여부	'YES'=1, 'NO'=0
TCH2	주변의 특별기술보유자의 지도여부	"
TCH3	생활관계보급원의 지도여부	"
TCH4	농협의 생활지도원의 지도여부	"
TCH5	현(縣)직속 가공기술센터의 지도여부	"
<b>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b>		
PRB1	원재료 확보가 되지않는 문제	'YES'=1, 'NO'=0
PRB2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
PRB3	가공기술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	"
PRB4	신제품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	"
PRB5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문제	"
PRB6	구성원의 주체성 결여문제	"
PRB7	구성원의 고령화문제	"
PRB8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문제	"
PRB9	소비자요구의 파악이 곤란한 문제	"
PRB10	판로확대가 어려운 문제	"
PRB11	자금이 부족한 문제	"
PRB12	가공관계의 정보입수가 곤란한 문제	"
PRB13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이 되지 않는 문제	"

Econometric View (Version 2.0)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가 샘플수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선택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우선, 변수군을 둘로 나누어 방정식을 추정하여, 거기에 t 값의 절대치가 지극히 낮은 변수를 없앴다. 그리고 남아있는 데이터를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방정식을 추정하고 t 값의 절대치가 낮은 것부터 변수를 없애 가면서 작업을 하여, 그 중에서 AIC(赤池의 정보량 기준 : G.S.マダラ 1994)가 가장 낮게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3)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얻어진 모델은 <표 4>와 같다. 단체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1 년간의 매상금액, 농산물가공과 다른 사업과의 병행여부가 채택되었다.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 방법으로서 현(縣)직속 가공기술센터의 지도여부가 채택되었다. 효고현립(兵庫縣立)가공기술센터는 효고현(兵庫縣) 농업수산부 보급교육과 산하의 현립(縣立) 농업북부 기술센터에 설치되어, 식품의 가공기술·유통기술 등에 관해서 시현연구, 상담, 지도, 연수,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농촌여성가공회로서는 중요한 시설이다. 현재, 농촌여성가공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가공기술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문제, 구성원의 주체성결여 문제, 자금의 부족문제, 구성원의 경영 진단분석문제 등의 5개의 독립변수가 채택되었다.

종속변수의 내용에서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 가공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계수의 부호를 正(+)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계수의 부호는 負(-)가 된다. 이하에서는 위와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채택된 독립변수에 있어서 계수의 부호의 논리적 정합성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1년간의 매상 금액, 농산물 가공과 다른 사업과의 병행여부, 현(縣)직속 가공기술센터의 지도여부의 계수의 부호는 正(+)이다. 다시 말해서, 1년간의 매상금액이 높을수록, 농산물가공을 중심으로 한 다른 사업, 즉, 직매소, 레스토랑, 가공체험시설 등을 병행할수록, 현직속 가공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을수록, 농산물 가공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향이 높음을 설명한다.

한편,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문제, 구성원의 주체성결여 문제, 자금의 부족문제,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 문제의 계수의 부호는 負(-)이다. 이와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는 것을 설명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가공기술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후계자를 길러지지 않는 문제, 구성원의 주체성이 결여 문제, 자금의 부족문제,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 문제 등의 문제점이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저해하는 영향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자금의 부족 문제,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 문제 등에 관해서는, 지역 자치 단체와 농업개량보급센터와 같은 관계기관과 연계 하면서, 지도·조성을 받아 해결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표 4>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 가공활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

	변 수 명	계 수	t값
RVN	1년간의 매상 금액	0.00116	1.55
MIX	농산물가공과 다른 사업과의 병행여부	3.38777	2.42
TCH5	현직속 가공기술센터의 지도여부	1.16604	1.36
PRB2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2.63073	-1.44
PRB5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문제	-2.48925	-3.19
PRB6	구성원의 주체성 결여문제	-4.37086	-2.14
PRB11	자금의 부족문제	-2.20804	-1.84
PRB13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 문제	-2.33594	-1.41

특히, 구성원의 경영에 대한 진단분석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을 얻어 대표자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활동에 종사하는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원의 주체성 결여문제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주체성을 길러내는 일은 농촌여성가공회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어떤 기업(企業)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출자하고 스스로가 경영주체가 되는 「기업(起業)」으로서 성립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중요한 일이며,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활동에 참여하는 일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체제육성이 과제가 될 것이다. 후계자가 길러지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수

있는 단체의 육성을 통해 자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젊은 층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육성을 추진해 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현재 직면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일이 금후, 농촌여성가공회의 농산물 가공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효고현(兵庫縣)에서 생활개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농촌여성가공회의 발전가능성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질적반응모델의 하나인 logit모델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활동을 발전가능하게 하는 영향요인을 밝혔다.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의 결과에서 밝혀진 농산물 가공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저해요인에 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공시설의 규모확대가 곤란한 문제, 둘째, 후계자를 길러 낼 수 없는 문제, 셋째, 구성원의 주체성결여문제, 넷째, 자금의 부족문제, 다섯째, 구성원의 경영진단분석문제 등의 다섯 가지점을 들었다. 후계자 문제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일 뿐 아니라, 특히 자금면에서의 문제가 대두되어,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이 금후의 과제로 결론내릴 수 있다. 또한, 구성원의 주체성은 여성단체가 농산물 가공활동을 기업(起業)으로서 성립시켜 갈 경우에 더욱 중요하며, 여성자신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의의가 있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주체성을 고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은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지역농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을 하고 있다.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은 자신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매력있는 농촌지역

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여성가공회의 다양한 활동의 진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활동의 지속의 영향변인, 특히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류활동과 이벤트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역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간의 소비자의 지원태세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면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때에 농촌여성가공회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효고현(兵庫縣)의 농촌여성가공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라는 점, 조사대상이 각 농촌여성가공회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농산물 가공활동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이외에 농가경영분야, 농업노동개선분야, 농촌환경분야에서의 농촌여성의 활약상에 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우리나라의 생활개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참 고 문 헌

1. 농촌진흥청 농촌생활개선연구회(1993). 생활개선의 발자취.
2. 石田正昭(1996). 中山間地域の水田農業に与える影響. 黒柳俊雄・嘉田良平. 米自由化の計量分析. pp. 102-118, 大明堂, 東京.
3. 川俣茂(1997). 新普及活動指導論. p. 19,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東京.
4. 黒柳俊雄, 嘉田良平(1996). 米自由化の計量分析. p. 106, 大明堂, 東京.
5. 茂野降一(1989). 農家高齢者の就業行動. 農業經濟研究 61(2):66-77.
6. 女性に関するビジョン研究会(1992). 2001年に向けて新しい農山漁村の女性. p. 15-62, 創造書房.
7. 新政策推進研究会(1992). 新政策そこが知りたい. 大成出版社, 東京.
8. 地域社會計劃センター(1993). 農村婦人の起業が地域社會および經濟の活性化に果たす役割と今後の展開

- 方向に関する調査報告書.
9. 地域社会計画センター(1994). 農村の女性起業における女性の主体性と能力發揮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10. 地域社会計画センター(1995). 農村の女性起業家たち, p. 23.
  11. 寺協拓(1996). 生産緑地選擇行とその動政策的含意. *農業經濟研究* 68(1):37-44.
  12. 兵庫縣生活改善實行グループ連絡協議會(1992). グループの年輪-20周年記念誌, p. 228.
  13. 吉本諭, 永木正和(1997). 中山間地域における男子高齢者農業勞働力の就業變動要因. *農林業問題研究* 33(1):34-42.
  14. 魯采瑛(1998). 生活改善普及事業の展開過程に関する研究-兵庫縣下の女性グループによる農産物加工活動を中心として-. 日本神戸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